시 론

스포츠 리더십·펀경영으로 여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



김 영 식
前 남부대학교 교수·
국제웃음생명연구소장

지난 10월은 스포츠와 축제의 계절이었다.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장성군에서 열린 전남·광주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마라톤과 지역 축제가 펼쳐졌다. 축구·야구·배구 프로스포츠도 팬들의 열기를 이어갔다.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과 박수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인공지능(AI)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함께 뛰고 환호하며 느끼는 생생한 감동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필자는 스포츠의 즐거움과 재미에서 전남·광주 통합의 지혜와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의 팀워크에서 통합의 원리를 배우자.

야구에서 홈런을 치는 선수만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투수와 수비수, 출루하는 선수, 전략을 세우는 감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서로 다른 능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화를 이룰 때 강한 팀이 탄생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마찬가지다. 광주의 산업·교육·연구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농수산업·산업용지 등 지역 자산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기반이다. 어느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통합이 아닌 각자의 강점을 연결해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의 성공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에 달려 있다.

둘째, 즐기는 스포츠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승리만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응원하고,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며, 낯선 사람과도 웃음을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전남·광주가 공동 마라톤 대회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행사, 지역 스포츠 축제를 확대한다면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스포츠를 문화·관광·일자리와 연결하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매력도 높일 수 있다.

셋째, 스포츠 리더십으로 갈등을 넘어 상생을 설계하자.

스포츠와 정치는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생한 현장이다. 감독은 선수의 능력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위기에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 통합을 이끄는 리더에게도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다.

청사와 공공기관의 위치, 재정 배분, 산업시설 유치 등을 둘러싼 갈등은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할 수 없다.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청년 일자리와 주민의 삶의 질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앞세워야 소외된 지역에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열린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소통과 펀경영의 힘이다. 축구경기장에서 감독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요구하고 그래야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듯, 지역 통합에도 경청과 공감이 필요하다. 펀경영은 일을 가볍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을 끌어내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경영의 지혜다.

가을 야구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KIA 타이거즈 응원단의 열정과 카리스마였다. 승리를 향한 간절함과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에는 호남인의 자부심과 공동체의 힘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열정이 전남·광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 스포츠는 즐거워야 하고, 기업은 신바람 나야 하며, 통합은 주민에게 희망이 돼야 한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도전하며, 함께 성과를 나누자. 스포츠의 팀워크와 펀경영의 지혜를 바탕으로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통합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천년의 소외를 넘어 새로운 천년의 도약으로! KIA 타이거즈의 열정처럼, 전남·광주가 하나가 돼 더 큰 미래를 열어가자. 영구적위기의 시대에 펀경영으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열쇠다.

자치칼럼

주민자치회, 이제 주민의 결정권으로 완성해야



김 병 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그러나 행정이 의제를 정하고 예산의 쓰임을 결정한 뒤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에서는 주민이 주인으로 서기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자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어떤 결정권을 보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요한 전환이다. 올해 10월15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에 담았다. 2013년 시작된 시범실시를 넘어 본격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주민자치회 설치와 행정·재정 지원은 여전히 임의규정이며, 위원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주민총회 결정의 예산 반영 의무도 법률에 직접 담기지 않았다. 위원 선정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법제화 이후에도 행정 의존이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주민총회가 결정할 생활사업의 범위와 예산을 구체화해야 한다.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지방정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예산 반영 여부와 추진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법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의 결정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끝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답변 기한과 결과 공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주민에게 맡길 사무에는 예산과 실무 지원이 함께 따라야 한다. 기본 운영비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회계·계약·정산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건이 어려운 읍·면·동은 공동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자치라는 이름으로 주민의 헌신에만 의존하거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 내부도 달라져야 한다. 공개모집과 추첨 등을 활용해 특정 인맥에 자리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이 아닌 주민에게도 분과와 의제 토론을 열어야 한다. 회의록과 예산·결산을 공개하고 이해충돌을 막는 절차도 필요하다.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과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사익을 위한 관여 금지를 함께 지키면서 주민의 정책 토론은 보장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행정의 규모가 커진 만큼 생활 현장의 자치도 더 촘촘해져야 한다. 특별시는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시·군·자치구는 주민이 생활 의제를 결정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

도시의 아파트와 원도심, 농산어촌과 섬마을에 같은 운영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돌봄과 보행안전, 이동과 생활서비스 등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 시간은 생업과 돌봄, 농번기와 조업을 고려하고, 찾아가는 논의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야 한다. 참여하라는 요청에 앞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법률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한다. 주민이 다룰 수 있는 생활 의제부터 권한과 지원을 갖추고, 제안의 처리 결과와 생활의 변화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성과는 주민제안이 실제 생활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남광주의 주민자치회가 이러한 경험을 쌓으며 주민 중심 자치로 성장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길 잃은 어르신, 우리의 관심으로 지키자



늦은 저녁 골목길이나 도로 주변을 혼자 걷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는가. 단순한 산책일 수도 있지만, 같은 장소를 서성이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린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어르신이 어쩌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실종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실종신고 가운데 치매환자 관련 신고는 2천420건에 달한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치매환자 실종은 더 이상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다.

치매환자의 실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평소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잃을 수 있고,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야간이나 추운 날씨에는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 있으며, 도로를 배회하다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노력과 함께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의 가족이라면 배회감지기나 경찰의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실종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을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르신,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한 번 말을 건네보자.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하거나 대답이 불분명하다면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의 안전은 경찰의 순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웃을 향한 주민의 관심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역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누군가 신고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치기보다 내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길을 잃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보다, 그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관심일지도 모른다.

〈김찬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광주문화재단, 공공 문화기관 정상에 서다

광주문화재단이 2026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광주 11개 기관 중 1위에 오르며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기관장평가에서도 13개 기관 중 2위와 S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2위(A등급)에 머물렀던 광주문화재단이 마침내 정상에 오른 것이다. 광주문화재단 대표가 현재 공석인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크다.

광주문화재단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순위 상승을 넘어 무엇보다 지역 문화예술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쟁력과 정책 실행 역량을 입증했다는 사실이다. 광주문화재단의 경영전략과 성과관리, 조직·인사, 재정, 대외협력 등 경영 전반의 혁신이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시민 문화향유자는 168만5천909명을 기록해 목표 대비 111%를 초과했다. 문화예술인 참여자는 3만1천737명으로 목표 대비 122%를 넘어섰다. 여기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 대표정책 선정, '지역상생·문화동행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크리에이티브아트' Asian Arts Special Award 수상 등 대외적인 경쟁력도 입증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정부가 책임경영, 경영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정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잣대다. 특히 문화재단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광주문화재단의 이번 성과는 광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임을 입증한 셈이다.

여기에다 이번 성과는 광주·전남 문화재단 통합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주목을 끈다. 문화재단 통합은 지역별 특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는 상생의 문화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조직 내부의 안정과 현장 예술인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말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 예술인에게 큰 힘이 되는 공공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지역의 미래인 아이 울음소리 '반갑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속에 이같은 변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더욱이 전남이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출생아 수 회복 흐름을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남광주 지역 출생아 수는 1천42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천282명보다 139명(10.8%) 증가했다. 이중 광주는 올해 532명으로 전년보다 36명 감소한 반면, 전남은 889명으로 175명 늘었다. 전남 권역 누적 출생아 수는 6천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749명보다 971명(16.9%)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의 변화에 대해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덩달아 전국적인 출생아 수 증가도 고무적이다. 8월 출생아 수는 2만3천7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 늘었다. 8월 기준으로는 2019년 2만4천371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4년 반등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합계출산율도 0.8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09명 상승했다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대목이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혼인 증가와 30대 인구 변화,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출생아 수 증가가 곧바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출산은 인구 감소, 고령화, 노동력 부족, 경제적 부담 증가,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무엇보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놓고 고민하는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이 확충돼야 한다. 출생아 수의 증가는 지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희망의 신호다. 지역자치단체와 교육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나누는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월요시화 月曜詩話

「모르는 호두」 - 조영란

너는 손이 너무 차갑구나

손이 따뜻해지면
제가 이 알을 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생을 굴려도 불가능한 미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껍질 속에 갇힌 것들은 생각이 많고
그러다 때를 놓치는 일이 잦은 법이라고

망치는 약한 곳만 골라 내리친다
악의도 선의도 없이

우리는 서로 통증의 목록을 쥐고 있다

- 조영란, 『모란이 아닌 당신』, 여우난골, 2026.

따뜻한 몸으로 둥근 원을 만들면, 따뜻한 이불이 되면 뭔가를 낳거나 자라게 할 수 있겠지만, 통증의 목록을 쥐고 있기도 해서 누군가의 통증을 자라게 할 수도 있겠지.
한때 누구보다 단단한 껍질을 지녀, 생각을 많이 키웠으나 통증과 잃어버린 기회로 밝혀진 때가 많았지.
차가운 손을 더 품어주기를, 목록에 적힌 것들이 하나둘 지워지기를 기도하지만,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인지 모르지. 우리, 기도가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천세진 시인·비평가, 웹진 〈초록의자〉 주간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灒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진부 650-2080 논설실 650-2006 TV본부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 문의 650-2099 마케팅본부 650-2070 경영지원국 650-2011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